제주 서쪽, 중산간 즈음, 살기 좋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게 제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처음 숙소를 시작할 때 컨셉은, [제주도 사는 언니네 집으로 놀러 가기] 였어요. 편안한 공간에 따뜻함을 담아 맞이하는 숙소가 되고 싶었거든요. 손님들의 여행에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숙소로 맞이합니다. 체크아웃 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"편안하다"였어요.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가족들에게는 최고!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과 각종 용품들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에 딱 좋으실 겁니다.

"제주에 온 지 8년 차. 부모님 두 분이 직접 관리하시고, 손님도 맞으시는 진짜 손수 꾸려가는 공간이에요.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호스트는 인테리어도 직접, 텃밭도 직접, 숙소 홍보도 직접 합니다.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 늘 고민하고, 따뜻함을 드리기 위해 마음을 쏟고, 쾌적함을 드리기 위해 항상 깨끗하게 청소합니다. "

화우재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3095-3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주가흘길 32-1

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

• 내 집같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준비된 주방용품과 생활용품

• 다이닝 룸 통창에서 보는 귤 밭과 새싹부터 열매까지 농작물이 매번 바뀌는 밭 뷰

• 함께 하는 순간의 행복하고 해맑은 웃음을 담을 수 있는 스냅사진

이런 여행객에게 추천

• 조용히 제주를 느끼고 싶은 분

•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며 사진도 찍고 싶은 분

•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힐링이 필요한 분

• 아이와 함께 오는 가족

알아두면 좋은 사항

• 스냅사진 촬영해 드려요.

• 근처에 큰 마트, 카페, 식당 등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요.

•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거리로 오실 수 있어요.

• 유아용 의자 및 기타 유아용품이 비치되어 있어요.